

취약한 연구대상자 보호 방안

‘디지털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연구의 인터뷰 대상이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진은 취약한 연구대상자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취약한 연구대상자 보호방안을 고려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고려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SOP)’ 제37조 ‘취약한 연구대상자에 대한 보호’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취약한 연구대상자가 연구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

디지털취약계층이 의료서비스 접근과 건강관리에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여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지털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의 의견을 듣고 연구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취약한 연구대상자에게 예견되는 위험과 보호방안

인터뷰 대상자의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자이기 때문에 신체 거동이 불편함을 고려하여 인터뷰 장소와 시간 선정에서 대상자의 편의에 맞출 것입니다. 또한 연구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연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쉬운 언어로 동의서를 작성하고 설명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측면에서 개인정보, 인터뷰 기록물을 연구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연구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 종료 후 정보 보유 목적이 소멸되면 개인정보, 인터뷰 기록물, 녹취 파일 등은 파기할 것입니다.

3. 취약한 연구대상자의 자발적 동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및 보완대책

연구대상자의 자발적 동의와 비동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연구 참여 동의서’를 통해 자발적인 의사를 확인하겠습니다. 동의서 작성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참여 거부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연구 참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강압적이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설명할 것입니다.

인터뷰 과정에서는 본인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도록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지 않고, 곤란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 거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할 것입니다. 또한 참여 중에도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인터뷰를 그만둘 수 있음을 알리고 연구 참여 중지로 인한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음을 미리 고지하여 연구가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